



대교협 동정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를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입학사정관들이 자신들의 평가업무를 소개하는 '입학사정관 공감토크', 입학사정관제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동아리인 '드림 멘토단' 출범식, 입학사정관제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설명,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학생들을 위한 추수지도에 대한 이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미치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영향 분석, 입학사정관전형의 타당도와 신뢰성에 대한 분석 등을 발표하고 깊이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사정관, 대입 인성평가 위해 학교폭력 실태 공부

- 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진로진학상담 교사들로부터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 실태 배우고 정보 공유하는 세미나 개최 -

2012년 고교대학연계세미나(1차)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

- 대상 : 대학입학사정관 및 고교진로진학담당교사 500명
- 장소 :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1층 (부산광역시 소재)
- 기간 : 2012.7.30(월) 13:30 ~ 7.31(화) 13:00
- 참가신청기간 : 2012.7.20(금) 09:00 ~ 7.23(월) 17:00
(500명 정원으로 신청종료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과 고교 현장과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7월 30일(월)부터 31(화)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2012년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교-대학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인성평가 강화” 주요 내용(12.5.31.보도)>

- ❖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에서 인성평가 강화
-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은 긍정적으로 평가
- ❖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 대학입학사정관과 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진로진학상담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청소년 문제와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비행동기, 비행 행동의 내용,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 이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인성평가 강화 방안”을 주제로 100분에 걸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성을반영하는 방법에 관해 고교 교사들과 입학사정관들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입학사정관들에게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재로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인성 관련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세미나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이 학교현장, 청소년의 문제, 인성 교육 등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진로진학상담 교사들과 생활지도부장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입학사정관들과 고교 교사들이 모여 청소년 문제와 인성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할 계획(12. 8. 23~24)”이라고 밝혔다.

회원대학 소식



부경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30일 오후 부산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 대학극장에서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및 고교 진로진학담당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2012년 고교 대학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이윤호 교수(경찰행정학과)의 ‘청소년 범죄와 인성교육’ 특강을 시작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인성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로진학담당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성발달사항 기록과 연계한 인성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사항 기재 문제, 동아리 및 봉사활동 평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 31일 오전에는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입학사정관제-학교 환경을 고려한 평가방향’을 놓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학교환경 고려의 의미, 학교 환경 평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고교생들에게 대학에서 이뤄지는 전공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를 갖고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북대 입학본부 입학사정관실은 지난 7월 25일부터 도내 고교생 2,400여 명을 초청해 오는 8월 10일까지 33개 학과(부)에서 전공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전공체험 행사는 잠재적 교육 수요자들인 고교생들에게 대학과정 전반의 커리큘럼을 이해시키고, 고교와 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것.

□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해 온 전북대 입학사정관실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알찬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참여 고교생들은 과제를 통해 관심 전공 분야를 미리 탐방하고, 전북대를 직접 찾아 체험해봄으로써 관심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였다.

□ 참가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전공학과를 직접 방문해 교수님들과 대화하며 실험에도 참여해봄으로써 대학과 전공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꿈꿔온 전공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 박종민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고교생들을 직접 대학에 초청해 전공체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고교와 대학이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들에게 전공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며 "전공체험에 이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심층면접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복지시설을 찾아 연주회를 갖는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 대구가톨릭대 피아노과 2학년 학생 10명은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다문화 피아노교실'에 참가해 다문화가족 자녀 13명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대구시 동구 동호동)에서 매주 1회 1시간씩 자신이 맡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멘토링식 수업을 진행한다.

□ 다문화 피아노교실 첫날인 23일 권은영씨(20)는 이유정 양(11)에게 피아노의 기초인 손가락번호와 계이름 익히기, 박자 맞추기 등을 가르쳤다. 권씨는 이양 말고도 두

명의 학생을 더 맡아 지도한다. 권씨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경험을 쌓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이번 다문화 피아노교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 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자녀들이 피아노를 배우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피아노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약 6개월간 피아노를 배운 뒤 연말에 열리는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탄행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계획이다.

□ 대구가톨릭대의 다른 학과 학생들도 6~7월 전공을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학생 43명은 지난 6월 16일 대구 SOS어린이마을에서 연주회를 열어 원생들을 즐겁게 했다. IT공학부 학생 12명은 6월 23일 포항 성모자애원을 찾아 스마트폰 등 최신 통신기기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돌아왔으며, 의료과학대의 안경광학과와 방사선학과 학생 54명은 7월 18일 포항 대해성당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골밀도검사를 실시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교과부 장관, ‘21세기 핵심 역량으로서 인성 덕목을 구체화하겠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1세기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성의 주요덕목을 구체화하고 인성교육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월24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출범식의 ‘Talk 人’ 프로그램에서 현대자동차 장동철 이사와 성균관대학교 권영신 입학사정관과 함께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주제로 공감 토크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제는 과거에 해 온 인성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실천중심의 차별화된 인성교육을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인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인성교육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체득하는 것이고, 교육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실련의 출범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실천 운동 전개와 연계하여 상향식(bottom-up)의 참여와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성의 주요 덕목을 인격의 측면에서 정직과 도전정신, 사회성의 측면에서 배려와 소통, 감성적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와 공감의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이러한 덕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 21C에 필요한 핵심 인성 덕목을 추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핵심 덕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부는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이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델파이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성 핵심 덕목을 구체화하여 8월말 인성교육비전 선포식과 9월 인성교육 실천 종합 보고서 발표 시 반영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실태 감사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 2. 6.부터 2012. 3. 23.(추가감사기간 : 2012. 6. 7.~6. 15.)까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2011년 취업률 산정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고, 감사 대상대학은 전년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감사결과, 허위취업*, 직장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계상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 등 서류상으로는 업체에 취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취업) A대학교 ○○○○학과 등 6개 학과는 검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미취업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업체에 제공하였고, 일부 학과는 학과 실험실습비로 허위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으며, B대학교는 52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인턴보조금* 56,300천원(1인당 500천원)을 지급하였고,

*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재원(국고)

C대학교 ○○학과 등 5개 학과는 교수, 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12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16개 대학에서 284명을 허위 취업시켜 공시 취업률을 부풀렸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허위 취업과 관련된 16개 대학 교직원 51명을 책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도록 요구하였고, B대학교의 경우 부적정하게 지급한 인턴보조금 48,479천원(기 납부된 보험료 7,821천원 제외)을 관련자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D대학 ○○○○과는 검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미취업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8개 대학에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 82명을 업체에 부탁하여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자로 산정하였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과 관련된 7개 대학 교직원 11명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과도한 교내 채용) E대학교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2011. 5. 26.부터 9. 2.까지 3개월 8일 간 교내 행정인원으로 단기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 예정인원(150명) 대비 28명이 초과된 178명을 채용하는 등 3개 대학에서 미취업자 745명을 교내 채용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도한 교내 채용과 관련된 3개 대학 교직원 17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진학자 과다 계상) 2011. 6. 1. 기준으로 졸업자 중 학위과정에 진학한 자에 대해서만 졸업자 수에서 제외하고 취업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F대학은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하여 취업률을 산정하는 등 4개 대학에서 진학자 42명을 과다 계상하여 취업률을 산정하였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진학자를 과다 계상한 업무담당자 12명을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사결과, 허위취업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를 감안하여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종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각 대학에서 공시하는 취업률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역량 강화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